

## 팔레스타인 영화에 나타난 주제의식 연구: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영화를 중심으로\*

| 김종남, 안정국\*\* |  
Kim, Jong-Nam, Ahn, Jung-Kook

### **A study on the Themes in Palestine Films: Focused on films directed by Hany Abu-Assad**

This paper analyzed the symbolism and theme consciousness focused on four Palestine films directed by Hany Abu-Assad.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Palestine national historical background and film industry history, analyze Hany Abu-Assad's previous interviews through diverse media channels and other film-related information, and finally figure out the director's messages to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 Furthermore, it was aimed to research and identify Palestine films' impacts, implications and relevant threshold in global society.

In recent years, Palestine films had a tendency to describe people who are able to think and behave in a subjective and independent manner, compared to the past Palestine films which were mainly based upon its ethnic orientations. With this change, international attentions and respects from global film festivals have been paid to Palestine films by inviting and awarding some of the Palestine films and directors. As predicted, Hany Abu-Assad was the very one of the representative Palestine film directors.

In this study, therefore, four Palestine films were examined as follows.

\* 이 연구는 김종남의 석사학위논문(같은 제목,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9)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수정한 것임

\*\* 김종남/제1저자/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대학원, E-mail: lusyaeckku@daum.net; 안정국/교신저자/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교수, E-mail: kookan@mju.ac.kr



First, Rana's wedding (القدس في يوم آخر) which describes women who live bravely even under the harsh surveillance and limitations, sealed off from the world outside. Second, Paradise Now (الجنة الآن) which shows two young men who live without any specific purposes by complaining on their realities. Third, Omar (عمر) which describes Palestine young generation who is mentally weak and fragile but with strong will and hope for their future lives. Fourth, The Idol (يا طير الطائر) which is for the hopes and wishes of Palestine children with songs, based on true stories.

This analysis on the four films produced by Hany Abu-Assad above was believed to give new opportunities to take a look at Palestine people's real struggling lives, apart from the prevalent image of Palestine which was considered as a center of religious and political conflicts in international arena.

**[Key Words : Palestine, film, Hany Abu-Assad, Rana's wedding, Paradise Now, Omar, The Idol, Theme consciousness]**

## I. 서론

본 연구는 영화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영화를 통해 다른 세계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할리우드 히어로물을 빼놓을 수 없다. 할리우드의 시각에서 벗어난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쉽게 만나기는 어렵다. 특히 아랍지역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접하기 어려우며 아랍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랍 사회문화 연구의 중요한 영역에 빈 공간이 생기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팔레스타인의 지난한 역사와 피폐한 삶을 드러내는 영화가 적지 않게 제작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팔레스타인 출신 감독의 영화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살펴보고 영화에 드러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팔레스타인 현지 로케이션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영화에 고스란히 드러내며 세계 3대 영화제<sup>1)</sup>에서 두 개의 상을 받기도 한 하니 아부 아사드(هاني أبو أسعد) 감독의 영화로 선정하고, 이 감독의 영화에 나타난 상징성과 주제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에서 주제는 작품으로 표현된 주요 사상이나 핵심적 의미를 뜻하며, 주제의식은 작품 속에서 그 주제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하여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의식 성향을 의미한다(이명진 2008, 4). 영화 작품에서의 ‘주제의식’은 영화의 주제로 표출되는 감독의 일관된 문제의식이라는 의미이다(구슬아 2017, i).

영화에서 주제의식은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드러난다. 예를 들면, 서스펜스 장르의 영화는 인위적인 장치를 넣거나 독특한 촬영 기법을 통해 영상을 보는 관객에게 많은 상상력을 심어주거나 영상 속에 담긴 심오한 주제를 보다 잘 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장치와 편집 기법을 영화 기법 또는 영화적 기법이라고 한다. 한편, 영화를 제작하는 환경 자체가 그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네오리얼리즘은 아부 아사드 감독의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에서 2차 대전 이후로 빠르게 발전하여 6년에 걸쳐 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을 야기시켰던 네오리얼리즘은 할리우드의 영화 발전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네오리얼리즘은 화려한 매력보다 꾸밈 없는 스타일을 강조하고 평범한 보통사람을 표현하며 기술보다 현실을 기록한다.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표현 방식은 전문 연극자가 아닌 사람이 주연을 맡거나 실제 상황을 촬영하고 롱 테이크나 다큐멘터리식의 배경 선택을 하는 것과 더불어 사투리나 현실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즉흥 창작 등의 특징을 살리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만가위 2018, 15).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영화 <노래로 쏘아 올린 기적>에서 연기 경험이 전

1) 칸영화제, 베니스국제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제5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UIP베를린상, 제66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무했던 아역 배우 5명을 발탁했다. 이 아이들은 모두 가자(غزة) 지구 출신으로 이러한 차별화된 캐스팅은 그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로 극의 사실감을 높였다.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매일 밤 폭격의 공포가 있는 곳이다. 실제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 연기하기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며 실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거주하던 아이들을 캐스팅한 이유를 밝혔다(씨네21, “Director’s Interview”, 검색: 2019.5.12).

즉,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영화는 넓게 말해서는 네오리얼리즘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네오리얼리즘 영화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살라흐 아부 사이프(صلاح أبو سيف), 무함마드 칸(محمد حامد حسن خان) 등의 이집트 감독들의 영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시절에 이집트 영화를 보고 자란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영화에도 반영되었다. 한 인터뷰에서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영화 <천국을 향하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제 현실을 이 영화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사실감 있게 유지하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더하기 위해 포장하려고 고민했죠. 영화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네오리얼리즘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깨에 카메라를 들쳐 메고 촬영을 했고, 소리없이 극적인 움직임을 내기 위해 스튜디오 효과를 사용했죠. 우리는 나블루스에서 영화를 찍었고 이 영화 자체로 리얼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Jadaliyya, “The Poetics of Politics: An Interview with Hany Abu-Assad”, 검색: 2019.6.30)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영화는 배우, 장소, 시나리오, 시사성의 4가지 구성 요소적인 측면에서도 네오리얼리즘 영화와 닮아 있다. 연기 경험이 없는 배우를 캐스팅하고, 미장센보다는 실제 장소에서 촬영하며, 실제 상황이나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쓴다는 점, 시사성이 있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파시스트 체제하의 이탈리아에서 영화 제작자들이 메가폰과 카메라 대신 기관총을 들고 파시즘에 저항하며 레지스탕스 운동을 펼쳤던 사회적 상황에서 영화를 제작하였는데(노비 친 2005, 30-31), 현재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내 의도는 실제 팔레스타인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라고 말했다(JTBC, “ ‘오마르’ 아사드 감독 ‘실제 팔레스타인 모습 보여주는 게 내 의도’ ”, 검색: 2019.3.9). 즉,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는 네오리얼리즘과는 분명하게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팔레스타인 로케이션 촬영을 고집하며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가 넓게 말해서 네오리얼리즘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II.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배경 및 성향

### 1. 출신지 및 성장과정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1961년 팔레스타인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극장에서 이집트 영화와 미국 서부 영화나 인도 볼리우드 영화를 보여 주었다. 그때부터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8살 많은 삼촌과 함께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다음은 한 인터뷰에서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이 언급한 내용이다.

“우리는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항상 가족에게 버려진 아이가 있었고, 나중에 성공하여 복수를 하죠...(중략)...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영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히브리어로 된 자막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영화를 좋아했죠.” (The Times of Israel, “The filmmaker who moved



back home” , 검색: 2019.5.20)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18세가 되었을 때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싶었고, 가장 잘 아는 예술의 형태인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81년 그의 삼촌을 따라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 하를렘(Haarlem)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암스테르담에 폭 빠져 있었다. 암스테르담은 주류 예술과 문학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였다. 뿐만 아니라 카라사와(Karasawa)와 베르톨루치(Bertolucci)의 영화 같은 변두리 문화까지 그 모든 것이 나사렛 출신의 아랍인, 하니 아부 아사드에게는 새로운 것이었고, 그로부터 얻은 자신의 상상력이 네덜란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준 자산이라고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항공 산업 분야의 엔지니어로 2년 동안 일했다. 고향에서 그는 가자 지구의 영화 제작자를 만나 조수로 일하다가 자신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떠나 Channel 4와 BBC에서 TV 프로듀서로 일을 시작했다. 1990년에는 팔레스타인 영화 감독인 라쉬드 마사라위(رشيد مشراوي)<sup>2)</sup>와 함께 아이를 영화사(فيلم أيلول)를 세우고 방송용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관심사인 다문화와 사회적 다원론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고, 6편의 다큐멘터리를 포함해 14편이 넘는 영화를 만들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새로운 묘사를 시도하는 그의 영화는 네덜란드, 프랑스, UAE, 미국, 독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Nashef 2015, 3).

---

2) 1962년 가자 지구에서 출생했고 알 샤피 난민 캠프(مخيم الشاطئ)에서 성장한 팔레스타인 영화 감독 (Gertz 외 2005, 43).



〈표 1〉 하니 아부 아사드 필모그래피(감독 분야)

영화 제목	연도	수상 내역
14번째 아가씨 (Het 14e kippetje)	1998	
나자렛 2000 (Nazareth 2000)	2001	
라나의 결혼식 (Rana's wedding, al-Quds fee yom akhar)	2002	Cologne Mediterranean Film Festival(2002), Grand Prize 수상 Haifa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03), Golden Anchor Award 수상 Montpellier Mediterranean Film Festival(2002), Golden Antigone 수상 Cannes Film Festival(2002), Critics' Week Grand Prize 후보 Marrakech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02), Most Popular Feature Film 후보 Buenos Aires International Festival of Independent Cinema(2003), Best Film 후보 Festróia - Tró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03), Golden Dolphin 후보 Thessaloniki Film Festival(2002), Golden Alexander 후보
포드차 통행 (Ford Transit )	2003	
천국을 향하여 (Paradise Now)	2005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05), Blue Angel 수상/Amnesty International Film Prize 수상/Reader Jury of the "Berliner Morgenpost" 수상/Golden Berlin Bear 후보 European Film Awards(2006), European Film Award 수상/Audience Award 후보 Film Independent Spirit Awards(2006), Independent Spirit Award 수상 German Film Awards(2006), Film Award in Gold 후보 Emden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05), Emden Film Award 후보 Nederlands Film Festival(2005), Golden Calf 후보/Dutch Film Critics Award 후보 Argentinean Film Critics Association Awards(2007), Silver Condor 후보 Tallinn Black Nights Film Festival(2005), Grand Prize 후보
인권에 관한 이야기 (Stories on Human Rights) 소년, 벽, 당나귀(A Boy, a Wall and a Donkey)	2008	
나를 잊지 말아요 (Do Not Forget)	2010	



Me Istanbul)		
더 쿠리어 (The Courier)	2012	
오마르 (Omar)	2013	Cannes Film Festival(2013), Un Certain Regard - Special Jury Prize 수상/Un Certain Regard Award 후보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13), Muhr Arab Award 수상 Asia Pacific Screen Awards(2013), Asia Pacific Screen Award 수상 Asian Film Critics Association Awards(2014), NETPAC Award 수상 Ghent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13), Youth Jury Award 수상 Traverse City Film Festival(2014), Founders Prize 수상 Tromsø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14), Norwegian Peace Film Award 수상 FEMF Festival of the European and Mediterreanean Film(2014), Best Film Award 수상 Adelaide Film Festival(2013), International Feature Award 후보 Melbourne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13), Most Popular Feature Film 후보 Cinema Bloggers Awards, Portugal(2015), Cinema Bloggers Award 후보 AFI Fest(2013), Grand Jury Prize 후보 Palm Springs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14), FIPRESCI Prize 후보 New Zeal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16), Audience Award 후보
노래로 쓰아 올린 기적 (The Idol, Ya tayr el tayer)	2015	Asia Pacific Screen Awards(2015), UNESCO Award 수상 Minneapolis St. Pa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16), Audience Choice Award 후보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16), MovieZone Award 후보 /KNF Award 후보
우리 사이의 거대한 산 (The Mountain Between Us)	2017	

출처: IMDb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mdb.com/name/nm0009463/> (검색: 2019.5.17)





## 2. 감독의 팔레스타인 정체성

하니 아부 아사드(이하 하니): **나는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에브너 호프스테인(Avner Hofstein): 하지만 당신은 이스라엘 여권을 소지하고 있죠.

하니: 그건 사실이지만, 나는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유대 국가라고 부르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의 국가라고 부르게 된다면,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정착촌이 있는 한 유대 국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Ynetnews, “Oscar nominee: People hate Israelis for a reason”, 검색: 2019.5.18)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팔레스타인 태생이지만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의 시민권자이다.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힌다. 아래에서 위의 인터뷰가 계속된다.

“유대인들은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잊어 버렸습니다. 편견의 희생자였고, 반유대주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 유대인들이 오늘날 똑같은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인류에 대한 믿음을 멈추게 만들죠...(중략)...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인종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난민 캠프에서 살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중략) 팔레스타인의 십대들은 다른 국가의 십대들과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 이스라엘에 계속 머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똑같이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우리나라의 시사주간지 시사IN의 한 평론가는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을 ‘어느 쪽 땅에도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고 평생 분리 장벽 꼭대기에 걸터 앉은 신세’ 라고 표현했다. ‘경계인’ 이라서 그는 ‘벽 너머를 증오하는 사람들’ 이 아니라 ‘벽 위를 위태롭게 걸어가는 사람들’ 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며, 동시에 ‘영화감독’ 이므로 그는 팔레스타인의 답답한 현실을 담아 내면서도 정치적인 토론은 하지 않는 영화를 연출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IN, “사냥꾼은 누구인가? 영화 [오마르]”, 검색: 2017.11.22). 감독의 목표는 정치적인 이야기 없이 성숙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감독이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흥미로운 영화는 정치에 대한 것들이 아닌 캐릭터들의 감정적인 여정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영화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밖으로 내몬 이유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관련시키지 않고도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씨네21, “의심과 공포, 믿음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검색: 2017.11.10)

가능한 한 많은 관객이 그의 영화에 빠져들도록 하고 장벽에 가로막힌 어떤 이들의 꿈과 삶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가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다.

### 3. 종교 및 정치적 성향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이 태어난 나사렛은 현재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는 도시이며 신약성서에 따르면 예수가 성장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영화 <나사렛 2000>에서는 밀레니엄을 앞두고 신성한 도시인 나사렛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에 큰 긴장감이 흐르는 이야기가 그려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나사렛 주민의 72%가 무슬림이지만 대부분의 땅은

기독교 기관의 소유이다(Nadilekolnas, 검색: 2019.5.19).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이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과 거리가 있다. 그는 아래 두개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으로서, 나는 정치 운동이 되는 종교 운동에 반대한다.” (Newsweek, “The director of ‘Paradise Now’ on his film’s impact”, 검색: 2019.4.1)

“팔레스타인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무슬림과 기독교인,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무함마드(محمد عساف)<sup>3)</sup>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큰 광장에 모여 즐기는 모습을 봤다. 중동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정치인과 팔레스타인 정치인이 서로를 증오하도록 선동하며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음악과 예술은 우리를 한 곳에 모이게 한다.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이것이 예술의 힘’ 이라고 생각했다.” (Rogerebert, “This is the power of art: Hany Abu-Assad on ‘The Idol’ ”, 검색: 2019.5.19)

지구상에서 종교와 정치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곳에서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종교와 정치를 배제하고 영화를 만든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영화는 팔레스타인 사회의 다양한 여러 종류의 성질을 반영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Gertz 외 2005, 8). 그의 영화에는 무자비한 이스라엘의 점령 아래 평범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반역과 죄절의 문제를 통해 묘사한다. 따라서 종교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국경을 초월하는 인간의 고뇌를 주제로 제시한다. 하니 아부 아사드의 영화에 등장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줄어든 고향과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향수 사이에 큰 변화를 느끼며 혼란스러워 한다. 이전 시대의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영화가 아닌 팔레스타인 개개인의 모습을 보

3) 무함마드 아사프(1989년생)을 가리킨다. 팔레스타인 가수로 아랍 아이돌 시즌2의 우승자이다. 무함마드 아사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레오로 쓰아 올린 기적>이다.



여 주는 영화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은 진정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필름 코멘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 밝히며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를 언급한다.

“〈복수는 나의 것〉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3부작에 딱 들어 맞는 영화다. 〈천국을 향하여〉는 “수치스럽게 사느니 죽겠다” 였고, 〈오마르〉는 “죄의식을 갖고 사느니 죽겠다” 였다.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고통스럽게 사느니 죽겠다” 였다. 복수는 매우 복잡하고 흥미로운 주제이다. 박찬욱 감독은 몇 편의 작품에서 복수라는 주제를 보여 주었고, 놀랍도록 타협하지 않았다. 이제 나 역시 타협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중략)...〈복수는 나의 것〉에서 흥미를 느꼈던 점은 복수 자체가 주제가 되었고, 정해진 운명이었다. 복수가 나쁜 것인 것을 알면서도 해야만 하는 숙명인 것이었다...” (Film comment 인터뷰, 검색: 2019.5.12)

한국 관객에게는 아랍의 박찬욱이라고 알려진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이 스스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비교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위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이 영화의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구속을 받지 않고자 하는 바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화를 찍을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영화를 촬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구속 없이,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주제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영화 속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풀어낼 때 분명 타협할 수밖에 없다.



### III.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영화에 나타난 주제의식

#### 1. 라나의 결혼식(القدس في يوم آخر)

영화 <라나의 결혼식>의 주제의식은 정치적 필요에 의한 희망과 팔레스타인의 진취적 여성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희망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진실로 바라거나 앞으로 될 가능성이다. 즉 희망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몸과 마음이 성한 데가 없이 지쳐 버렸다. 하지만 이 영화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진 팔레스타인 여성 라나를 통해 주제를 풀어 나간다.

영화는 이스라엘 점령 아래 예루살렘에서 결혼하려는 젊은 팔레스타인 여성 라나의 힘겨운 하루를 그리며 여성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사생활을 간섭함으로 인해 그들이 겪는 증상들을 라나를 통해 보여 주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드러낸다.

영화의 초반부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길에 배를 일렬로 세워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사람들의 서류를 확인한다.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총을 쏜다. 라나는 돌을 집어 들어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던진다. '라나' 라는 인물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좌절감을 요약해서 보여 준다.

라나와 약혼자 칼릴 그리고 그의 친구가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 도로의 바리케이드를 빠져나가 예루살렘 주변을 하염없이 돌고 돌아간다. 그들은 죽은 소년을 애도하는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된다. 죽은 소년이 들것에 누워 있고, 베일을 두른 여자와 젊은 청년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있다. 칼릴과 그의 친구는 라나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등록소로 향한다. 그러나 라나



는 차에서 나와 조문객들에게 다가간다. 라나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들도 라나를 응시하며 그녀와 반대 방향을 향해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장면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칼릴과 라나와는 반대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한다. 그녀는 차로 돌아가고, 판타지 시퀀스(Fantasy Sequence)가 나타나 차를 운전하지만 마치 차에 갇힌 것처럼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을 보여 준다. 하루 동안 쌓인 분노와 좌절감에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창문을 세게 치지만 도망갈 수는 없다. 순교한 소년, 죽은 어머니가 결혼식을 보지 못하는 것, 도시에 이스라엘 군대와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너무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분노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내 라나는 차창 밖에서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어린 소년을 본다. 그 소년이 진짜인지 상상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소년에게서 라나는 미래를 발견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나는 미래의 아이들과 그들을 상징하는 희망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 영화의 후반부에 라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힘으로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며 바리케이드를 뚫고 나가려고 한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라나의 옆집을 부숴버리자 그녀의 친구 메리에게 두려움에 대해 언급한다. 라나는 창밖을 내다 본다. 라나의 관점에서 그녀 앞에 총을 들고 줄 서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그들 뒤의 불도저를 보여 준다. 라나는 웨딩 드레스를 잡고 “그들은 내가 집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날에 집을 부수고 있어” 라고 메리에게 말한다. 메리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걱정마, 우리가 다시 지으면 되니까.”

다음은 사바 하이데르(Sabah Haider)<sup>4)</sup>가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사바 하이데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도한 것인가요?

4) 베이루트에 거주하는 캐나다 언론인이자 영화 감독. <https://www.sabahhaider.com/> (검색: 2019.5.12)

하니 아부 아사드: 저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죠. 시온주의 운동(Zionist movement)은 너무 강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희망이 없다면 저항 운동을 계속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도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라나는 그녀의 남편보다 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중략)...두 번째 인티파다 초기에는 지금보다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죠. 팔레스타인인들 대부분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처한 팔레스타인인들이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끝을 보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피난민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은 아랍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의 비겁함과 무력함 그리고 싸우거나 희생하기를 꺼려하는 성향 때문입니다.

주체적인 여성인 라나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며,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삶과 죽음이 오가는 팔레스타인에서 미래를 보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항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라나의 결혼식>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간접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항을 보여 주는 영화 <갈릴리에서의 결혼식>과도 종종 같은 선상에서 비교된다(Khatib 2006, 93-95).



## 2. 천국을 향하여(الجنة الآن)

영화 <천국을 향하여>의 주제의식은 삶의 덧없음과 죽음을 통한 명예 회복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두 청년 사이드와 칼리드는 테러리스트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나 테러리스트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화를 통해서 이들은 그저 시시하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사이드는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 팔레스타인을 감옥이자 기능하지 않은 국가라고 언급한다.

영화 <천국을 향하여>는 여러 가지 상징성을 담고 있다. 감독은 인물의 대사와 사건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현재 팔레스타인이 처한 문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영화의 초반부에 자동차 정비소가 등장한다. 칼리드와 사이드는 고르지 못한 범퍼에 대해 항의하는 손님과 논쟁을 벌인다. 사이드는 범퍼가 평평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땅에 대고 측정을 하지만 손님은 받아들이지는 커녕 도리어 화를 낸다. 이에 칼리드는 범퍼를 철제 막대로 꺾어 버린다. 즉, 문제가 자동차의 범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팔레스타인 땅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상황이 평탄하지 않은 팔레스타인에서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Nashef 2015, 3에서 재인용). 또한 고르지 않은 범퍼는 점령 아래 숨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국가의 부재 속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부서진 자동차가 보급되는 팔레스타인 사회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나타낸다(Nashef 2015, 5에서 재인용).

사이드의 동생이 엄마에게 필터를 교체했냐고 물어보자 엄마는 아들을 침묵 시킨다. 이러한 상황은 팔레스타인의 수도 공급 상황을 보여 준다.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 물이 부족하면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정상적인 국가 행정기능의 부재로 인해 평범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본적인 주거 환경조차 누리지 못하며 고통 받고 있다.



영화 내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풍경을 배경으로 비춰 준다. 웨스트 뱅크의 나블루스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죽음과 삶, 텔아비브의 환상적인 지역과 나블루스의 파괴된 건물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며 갈등 요소를 부각시킨다(Nashef 2015, 4, 8에서 재인용).

영화는 웨스트 뱅크의 풍경이 펼쳐지는 나블루스 교외의 후와라(حوارة) 검문소에서 시작된다. 젊은 여성 수하가 검문소를 향해 걸어 간다. 이스라엘 군인이 수하의 가방을 수색하는데 가방 속에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상징하는 검정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의 의류가 들어 있다. 이 장면은 여성을 국기의 수호자로 상징성을 부여하여 묘사한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Nashef 2015, 5). 한편 이스라엘 모사드(Mossad)에 의해 살해된 순교자 아부 아사프의 딸인 수하는 사이드와 칼리드를 계속 설득하려고 한다. 폭력적 행위가 결코 평화를 얻는 해결책이 아니며, 폭력을 위해 용기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녀는 오히려 자살 폭탄 테러가 이스라엘을 더 강해지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되는 평화로운 저항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두 청년을 설득한다.

영화에는 또 한 명의 팔레스타인 여성이 등장한다. 사이드의 어머니는 삶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삶을 소중히 여긴다.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죽음과 동일시 여기는 두 청년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다. 이러한 여성들이 영화에 등장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여성에 대해 생명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관객들은 모성애에 공감한다.

‘배신자’, ‘변절자’의 아들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이드에게 아버지는 참을 수 없이 수치스러운 존재이자 벗어나고픈 그늘이다. 이러한 그의 심리 상태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드러난다. 어머니가 사이드에게 아버지와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놀라워하는 장면에서 사이드는 화난 듯한 눈빛으로 다른 곳을 응시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묘하게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사회에서 받은 지탄과 그것을 벗어나고자 그가 택한 길이 바로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살 테러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그가 이루고



자 한 것은 영웅이나 순교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난민으로 살아가더라도 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여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이 영화에서 팔레스타인 사회 내 분열과 불모지가 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계획된 자살폭탄테러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이 영화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이분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회 구조 내에 존재하는 균열과 점령하에서 익숙해진 일상 속 어려움을 드러낸다. 임무 수행 전 비디오를 녹화하는 장면에서 사이드와 칼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남자들은 그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자살 테러를 앞둔 겁먹은 두 젊은이 앞에서 주변 남자들은 극도의 무심함으로 일관하며,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한다. 같은 직원으로서 이들이 보여 주는 무신경함은 관객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내 밝혀지는 이 비디오의 상업적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 이 두 젊은이의 임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 시계 수리소 장면에서 사이드와 수하는 우연히 순교자와 반역자들의 비디오 테이프가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심지어 반역자의 비디오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사이드와 칼리드가 사후세계에서 천국을 약속한 비디오가 상업적인 상품으로서 15세 겔에 팔리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Nashef 2015, 7).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사이드와 칼리드의 분열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순교와 테러, 삶과 죽음, 그리고 반역의 정의를 모호하게 만든다. 사이드의 눈을 비추며 마무리되는 결말은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기면서도 팔레스타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에 잠기게 한다.

임무 수행 전 두 청년과 다른 직원들이 다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떠오르게 한다. 긴 탁자에 13명이 앉아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한다.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팔레스타인이 기독교를 탄생시킨 땅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 땅이 옛날부터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징성을 띤 장소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또한 빵은 희생될 순교자들의 몸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Barthes 1957, 124).

한편 세계적 찬사를 받은 이 영화는 나블루스에서 상영된 적이 없다. 영웅적이지 않고 임무 수행에 주저하며, 무신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테러리스트에 관한 이 영화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별다른 호감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The Seattle Times, “Palestinians living in West Bank have dim view of “Paradise Now” , 검색: 2019.4.15) 첫 상영도 팔레스타인 영토에서가 아니라 두바이 국제 영화제에서 개봉되며 이루어졌다.

### 3. 오마르(عمار)

영화 <오마르>의 주제의식은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좌절과 삶을 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세 젊은이가 범한 폭력 행위가 정치적 분노보다 사춘기적 무모함에서 더 많은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저항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저항하기 위해서는 전략, 즉 상대가 움직일 때 움직여야 하는 감각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난민 캠프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어른’ 이 새로운 세대에게 더 이상 지혜를 줄 수가 없다.

후와라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 전초 기지를 공격하고 군인 한 명을 죽인 세 젊은이의 폭력 행위는 전형적인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행동으로 이를 통해 남성성을 증명하고 어긋난 충성과 동기가 맞물려 일련의 비극적이고 터무니없는 사건을 이끌어 간다.

이스라엘 점령으로 인해 미숙한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부담해야 할 짐이 커졌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나디아가 “인생이 너무 견디기 버겁다” 고 말한 것처럼 세 젊은이도 자기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청년과 다르지 않다(Nashef 2015, 10에서 재인용).

영화 속에서 오마르는 장벽이 예루살렘의 칼란디아(قلقندة)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가 아닌, 웨스트 뱅크의 팔레스타인



마을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루살렘은 특히 팔레스타인 거주지역과 이스라엘 거주지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벽은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을 폭력적으로 단절시키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씨네21,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어떤 은유 <오마르>”, 검색: 2019.5.13) 즉, 장벽은 이미 분할된 국가를 작은 영토로 산산 조각내어 국가로서의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현재 도시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랍인의 거주 지구를 둘러싸듯이 세워져 있다. 한편, 미국의 영화 평론가인 스콧(A.O.Scott)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시 철조망과 높은 콘크리트 분리 장벽으로 둘러싸인 황량한 산허리의 포위된 구역은 영화의 배경이자 실제 삶의 터전이며, 지역의 모든 면모가 강하게 정치화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로 인해 평범한 삶의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The New York Times, “Treachery Thrives Where Trust Withers”, 검색: 2019.4.26).

영화 속 거리는 냉소와 음모와 부패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 사이의 불신은 점점 더 커져 가고 모두가 의심의 희생자가 된다. 모두가 잠재적 반역자가 되며 감옥과 같은 기분이 드는 환경은 이러한 의심과 불신감을 더 커지게 만든다.

어른인 라미 요원은 항상 오마르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 오마르는 자신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나디아를 포함하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스파이라고 가정하고 스파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버린다. 히브리대 교수 힐렐 코헨(Hillel Cohe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반역의 정의는 모호하고, 규정하기 애매하며 논쟁을 야기하는 문제다. 어떤 사람이 특정 정치 집단에게만 반역자로 비난을 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반역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을 때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정치적, 가족적 이익을 구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Nashef 2015, 4에서 재인용)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이 영화를 ‘잘못된 선택을 하는 남자 친구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 라고 단순하게 묘사하지만 감독이 관객에게 덧붙여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감독은 영화 <오마르>가 우정, 신뢰, 배신과 관련된 인간의 문제를 솔직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Nashef 2015, 5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는 점령 아래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맞서 싸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관객에게 모든 관계가 배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신뢰가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The New York Times, 검색: 2019.4.26.). 점령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억압당하고 기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점령은 정상적인 인간의 발달을 제한하고 점령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불구로 만든다.

팔레스타인 젊은이에게 삶은 그저 생존하기 위한 것이다. <천국을 향하여> 이후 8년이 지난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다만 <천국을 향하여>의 두 젊은이와는 정반대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 처음 오마르가 라미 요원에게 잡힌 후 풀려났을 때 그는 어느 다른 나라의 젊은이처럼 자신감과 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마르는 라미 요원보다 자신이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디아에게도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Nashef 2015, 10에서 재인용). 하지만 나중에야 그는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스라엘의 점령이 형성되면서 그들 세대의 다른 국가의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해야만 했던 세 청년은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 친구들은 어른과 아이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인 총격 사건은 젊은이들을 어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했고 점령하 삶을 갑작스럽게 자각하게 한다. 영화의 여러 장면에서 오마르는 나디아와 쪽지를 교환한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쪽지' 는 순수함을 상징한다. 순수함을 간직한 청년이 이스라엘 경찰의 강요로 인해 스파이가 되어 어른의 세상에서 교활한 이스라엘 경찰과 이길 수 없는 경쟁하면서 그는 순수함과 젊음을 잃게 된다.



암자드가 오마르와 타렉에게 들려준 원숭이 사냥법은 영화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우화적으로 드러내준다. 오마르는 처음에 암자드의 농담을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적의 원숭이가 될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번 맛본 달콤한 각설탕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 년 후 오마르를 다시 찾아온 라미 요원이 밀고자로 일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마르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오마르는 라미 요원과 선인장 밭에서 만난다. 식물은 이 모든 점령 상황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계속 자라며 이는 팔레스타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상실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오마르는 선인장처럼 놀라운 회복력을 증명해낸다(Nashef 2015, 9-11). 오마르는 라미 요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암자드가 했던 질문을 던진다.

감독은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영화에 담는다. 오마르는 장벽에 오르려고 수 차례 시도하지만, 계속 실패한다. 이때 지나가던 노인이 말한다. “괜찮네, 일어나게. 다 잘 될 걸세.” 오마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노인의 도움을 받고 장벽을 뛰어 넘는다. 감독은 씨네21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춘의 연약함이다. 자유를 향한 투쟁은 ‘어른’들이 이끄는 것이지만 지금의 어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청춘들에게 그 투쟁의 의무가 남겨졌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치명적인 실패를 피해 살아온 경험이 없다. 그 투쟁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치명적인 실패를 피해 살아온 경험이 있는 어른들이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씨네21, “의심과 공포, 믿음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 검색: 2017.11.10)

#### 4. 노래로 쏘아 올린 기적(يا طير الطائر)

영화 <노래로 쏘아 올린 기적>의 주제의식은 노래로 이룩한 민족 통합과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희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아랍 아이돌(أراب آيدول)<sup>5)</sup> 출신 ‘무함마드 아사프’ 라는 팔레스타인 청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이전 영화들과 다르게 이국적인 아랍 음악이 영화 내내 흘러나온다.

무함마드가 택시에서 노래할 때 창밖으로는 가자 지구의 무너진 건물들이 나란히 비춰진다. 파괴된 가자 지구의 거리는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와는 지극히 대조적이다. 반짝이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추는 나일 강의 밝은 밤거리에 몰린 많은 인파는 무함마드의 고향인 가자 지구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의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르는 사람의 친절로 무함마드는 오디션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같은 아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은 도시의 풍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얼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가자 지구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영화 초반에서 무함마드는 함께 밴드를 하는 친구들과 ‘장님’에 대한 농담을 한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농담이지만, 그 속에서 슬픈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오랜 분쟁과 잦은 폭격으로 가자 지구는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가자 지구에는 가족을 잃거나 몸의 일부를 잃게 된 사람들이 많다. 영화에서도 무함마드가 택시를 운전하는 중에 다리를 잃은 사람이 휠체어나 목발도 없이 두 팔로 도로를 무심히 건너가는 장면이 있다. 무함마드는 그 모습을 무겁게 내려앉은 눈빛으로 쳐다본다. 불편한 몸을 지탱할 기본적인 도구조차 없는 생활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대사나 어떠한 장치 없이

5) Arab Idol. 영국의 인기 프로그램 Pop Idol을 기반으로 하는 아랍 TV 프로그램. 무함마드 아사프는 시즌 2(2013)에 출연했다.



일상적인 가자 지구의 실제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 주면서 이스라엘 점령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인들이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고요하게 외치고 있다.

이 영화는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영화 중에 팔레스타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으로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상영되었다 (Rogerebert, , 검색: 2019.5.19).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의 기사는 “무함마드 아사프는 나를 정말 감동시켰고, 그의 목소리가 내 영혼을 울렸다” 고 보도하며 그의 인기와 영향력에 대해 인정했다(The Times of Israel, “Mohammed Assaf, superstar” , 검색: 2019.6.29).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장벽은 높다. 다음은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씨네21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가자는 길고 긴 경계선이 쳐져 있고 지금도 폐쇄 상태에 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난 아사프의 목소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분쟁이 있는 아랍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다. 예술은 가혹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술의 힘을 축복으로 삼아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무함마드 아사프가 우승하던 때에 실제 이스라엘 북부 나사렛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방송을 지켜봤다. 믿을 수 없는 실화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아사프의 우승에 감동했고 어려운 시대에 놓여진 예술의 힘을 발견하는 기분이었다.” (씨네21, “Director’ s Interview, 검색: 2019.5.12))





## IV. 결론

팔레스타인 출신 감독이 제작한 영화에서 나타나는 주제의식을 분석하여 영화에 드러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초기 팔레스타인 영화에서는 영웅 서사와 혁명적 담론에 뿌리를 둔 신화적인 단일 민족에 대해 찬양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영화가 주를 이루었다. 팔레스타인을 신화적인 존재로 바꾸는 것은 환원주의(Reductionism)의 한 형태로 잃어버린 국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영화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점령하의 치욕스러운 현실을 묘사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팔레스타인 영화를 민족주의 영화로 볼 수 없으며, 최근 불고 있는 팔레스타인 누벨바그의 경우, 민족주의를 탈피한 새로운 경향을 보인다. 민족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이전 영화들과 달리 최근의 팔레스타인 영화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 인간으로 묘사한다(Nashef 2015, 2). 이러한 변화를 통해 팔레스타인 영화들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국제 영화제에 초청을 받고 수상을 하기도 했다. 그 중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이다.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팔레스타인 영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948년 이후 우리는 저항 운동을 하고 그것을 생생히 유지하는 것은 저항의 한 형태이다. 영화를 만드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역사에 보관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상황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다. 저항의 한 방법이다...(중략)...인간의 목소리는 훨씬 강하다.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힘으로 이스라엘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려고 한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정체성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주체가 된다.” (The Electronic Intifada, “Palestinian cinema is a cause: an interview with Hany Abu-Assad”, 검색: 2019.5.19)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작품 활동 과정을 살펴보고 네 편의 영화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었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시각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일관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테면 ‘테러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 <천국을 향하여>는 옹고 그룹이 무엇인지 고뇌하는 인간의 내면을 묘사하여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갈채를 받는 한편 테러리스트를 미화했다는 혹독한 비평을 받아야 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살인을 반대한다. 또 자살 공격이 중단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난 자살폭탄 공격을 수행하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내게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다”라며(씨네21, “테러범들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다, <천국을 향하여>”, 검색: 2019.6.30) 영화의 제작배경을 설명함으로써 그의 입장을 밝혔었다.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던 작품 <천국을 향하여> 이후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은 영화 <오마르>에서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감정선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었다.

2018년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영국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명분이 있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쉽게 끝나지 않을 분쟁을 이어가는 중 배우를 스파이로 현실에 잠입시키는 이야기이다. ‘아랍의 박찬욱’이라고 불리는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출신지와 연관이 있어 더욱 흥미롭다. 한편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을 리메이크할 감독으로 내정되었다.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감독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 여파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팔레스타인, 영화, 아랍, 하니 아부 아사드, 라나의 결혼식, 천국을 향하여, 오마르, 노래로 쏘아 올린 기적, 주제의식]



## 참고문헌

- 구슬아(2017), “金宗直 산문 연구 -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노비 친(2005), 박시진 역,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세계의 명작 영화 50』, 서울: 삼양미디어
- 만가위(2018), “이란 감독 아쉬가르 파라디의 영화 속에 나타난 리얼리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명진(2008), “張藝謀 영화의 主題意識과 敘事技法 研究”, 영남대학교 중어중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Barthes, Roland(1957), *Mythologies*.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New York: Noonday Press.
- Gertz, Nurith, George Khleifi(2005), *PALESTINIAN CINEMA Landscape, Trauma and Memo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 Khatib, Lina(2006), *Filming the modern middle east*, New York:I.B.TAURIS
- Lacey, Liam(2014), “A Mideast Film Noir: Palestine, Politics and Passion”, *The Globe and Mail*, February 14.
- Nashef, Hania A.M. (2015), “Demythologizing the Palestinian in Hany Abu-Assad’s *Omar* and *Paradise Now*”, *Transnational Cinemas*

### <인터넷 자료>

- 시스인, “사냥꾼은 누구인가? 영화 [오마르]”,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5> (검색: 2017.11.22)
- 씨네21,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어떤 은유 <오마르>”,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6104](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6104) (검색: 2019.5.13)
- 씨네21, “DIRECTOR’S INTERVIEW”,



[http://www.cine21.com/movie/info/?movie\\_id=51068](http://www.cine21.com/movie/info/?movie_id=51068) (검색: 2019.5.12)

씨네21, “의심과 공포, 믿음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http://magazine2.movie.daum.net/movie/16716> (검색: 2017.11.10)

씨네21, “테러범들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다, <천국을 향하여>”,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37714](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37714) (검색: 2019.6.30)

JTBC, “오마르’ 아사드 감독 ‘실제 팔레스타인 모습 보여주는 게 내 의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755961](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755961)

(검색: 2019.3.9)

The Electronic Intifada, “Palestinian cinema is a cause: an interview with Hany Abu-Assad”,

<https://electronicintifada.net/content/palestinian-cinema-cause-interview-hany-abu-assad/8708> (검색: 2019.5.19)

The Electronic Intifada, “Israel’s purging of Palestinian Christians”,

<https://electronicintifada.net/content/israels-purging-palestinian-christians/6669>  
(검색: 2019.5.19)

Film comment, “Interview: Hany Abu-Assad”,

<https://www.filmcomment.com/blog/interview-hany-abu-assad/> (검색: 2019.5.12)

IMDb, <https://www.imdb.com/name/nm0009463/> (검색: 2019.5.17)

Jadaliyya, “The Poetics of Politics: An Interview with Hany Abu-Assad”,

<https://www.jadaliyya.com/Details/34750> (검색: 2019.6.30)

Nadilekolnas, <http://www.nadilekolnas.org/hany-abu-asaad.php> (검색: 2019.5.19)

Newsweek, “The director of ‘Paradise Now’ on his film’s impact”,

<https://www.newsweek.com/director-paradise-now-his-films-impact-106413>  
(검색: 2019.4.1).

The New York Times, “Treachery Thrives Where Trust Withers”,

<https://www.nytimes.com/2014/02/21/movies/in-omar-the-west-bank-is-a-back-drop-for-betrayal.html> (검색: 2019.4.26)



Rogerebert, “This is the power of art: Hany Abu-Assad on ‘The Idol’”

<https://www.rogerebert.com/interviews/this-is-the-power-of-art-hany-abu-assad-on-the-idol> (검색: 2019.5.19)

<https://www.sabahhaider.com/> (검색: 2019.5.12)

The Seattle Times, “Palestinians living in West Bank have dim view of ‘Paradise Now’”,

<https://web.archive.org/web/20110524053025/>

[http://seattletimes.nwsourc.com/html/movies/2002759672\\_paradise25.html](http://seattletimes.nwsourc.com/html/movies/2002759672_paradise25.html)

(검색: 2019.4.15)

The Times of Israel, “Mohammed Assaf, superstar”,

<https://www.timesofisrael.com/mohammed-assaf-superstar/> (검색: 2019.6.29)

The Times of Israel, “The filmmaker who moved back home”,

<https://www.timesofisrael.com/the-filmmaker-who-moved-back-home/> (검색: 2019.5.20)

Ynetnews, “Oscar nominee: People hate Israelis for a reason”,

<https://www.ynetnews.com/articles/0,7340,L-3223216,00.html> (검색: 2019.5.18)

논문접수일: 2020년 01월 30일

심사완료일: 2020년 0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02월 16일

